

# 한국가족 어디까지 왔나?

## -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amily  
- In Crisis, o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고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족의 개념, 가족변화의 원인, 가족변화의 양상, 가족변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의 개념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가족변화의 원인에 있어서는 출산률의 급감,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결혼율의 하강 및 이혼율의 증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셋째, 한국가족의 변화상은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양대 입장인 가족위기론과 가족재구조화론을 비교하여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두 입장의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1. 서론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는 곳이다. 가족은 개인에게는 삶과 행위의 준거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지속시키는 기본단위가 된다.<sup>1)</sup> 따라서 가족의 안녕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에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가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한다.<sup>2)</sup> 가족사회학의 대가인 William Goode(1964)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최초로 제시하였다.<sup>3)</sup> 그는 현대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가족 형태라고 지적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산업화 및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등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가족은 변화의 소용돌

1)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2) Carter와 McGoldrick(1999)은 가족을 '시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회변화에 민감한 체계'라고 하였다. 양옥경, 「한국 가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6, 2000, pp.69~99에서 재인용.

3) Goode, William J., *The Famil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한국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저출산 세계 1위, 이혼율 OECD 국가 중 3위<sup>4)</sup>, 재혼율 상승, 2인생계부양(맞벌이)가구 증가, 한부모가구 증가, 비혼·만혼·동거 증가, 독신가구 증가,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증가, ‘원정 출산’과 ‘기러기 아빠’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의 도구화 현상 등이 한국가족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sup>5)</sup> 이로 인해 한국가족이 위기라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위기의식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 존폐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가족의 변화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가족의 변화 원인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가족이 가족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가족의 개념변화,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가족변화에 대한 양대 입장인 가족위기와 가족재구조화론의 시각 비교를 통해서 한국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 2. 한국가족의 개념 및 가족변화 원인

### 1) 가족에 대한 개념 변화

가족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가족의 고전적 개념은 미국 인류학자 Murdock에 의해서 정의내려졌다. Murdock은 가족은 ‘주거를 공유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집단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를 갖는 최소한 2인 남녀를 포함한 성인들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sup>6)</sup> 즉 Murdock은 가족을 혼인에 의하여 성립한 부부와 혈연 및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김두현(1948, 1968)은 가족을 ‘친애의 정으로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으로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sup>7)</sup> 즉 그도 가족의 혈연적 측면을 강조하

고 있다.

이효재(1968, 1993)는 가족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 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이라고 하여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sup>8)</sup> 혈연과 입양은 중시하고 있다.

유영주(1993)는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근원 집단’이라고 정의하여,<sup>9)</sup> 혈연과 동거 등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적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개정된 우리나라 민법 제779조에서는 ‘부부, 그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가족을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생활공동체로 규정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볼 때, 가

족이란 혼인, 혈연 및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이며, 공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정서적 및 정신적 유대와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협의의 가족의 개념보다는 혼인, 혈연, 입양 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기타 관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까지도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Miller(1994)는 가족이란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인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0)</sup>

한편, 가족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상가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혼, 저출산, 한부모가족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쇠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쇠퇴론자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혼 및 저출산 등에 의한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의 증가를 가족의 다양화라고 보고 있는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을 ‘경험적 실체’로서 정의해야 한다고 하면서,<sup>11)</sup> 최근 가족의 유형의 다양화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한 가족의 적응기제로써 이는 가족의

4) OECD 국가의 조이혼율('00년)순위: 1순위 - 덴마크 2.7, 1순위 - 벨기에 및 영국: 2.6, 3순위 - 한국: 2.5, 4순위 -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2.4(Euro Statistics: 김미숙·원영희·이현승·장혜경,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서 재인용)

5) 이재경, 「한국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2004, pp.229~244. 2003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가족 중에는 독신 가구가 15.5%,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 14.8%, 한부모 가족 9.4%, 그리고 국제가족이 8.2%에 달한다(http://cafe.naver.com/angeplus/25).

6) Murdock, 1949,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에서 재인용.

7)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에서 재인용.

8)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에서 재인용.

9) 유영주, 1993,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97에서 재인용.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11)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개념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구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진보론자인 Coontz(1997)는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여 혈연이나 입장을 통한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정서적 지지 기능을 하는 집단이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맞벌이가족, 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무자녀가족, 주말부부(통근)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동거가족, 실험 또는 계약결혼,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국제결혼 이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정상가족’ 밖의 형태를 취하는 ‘일탈적’ 혹은 ‘비정상’ 형태(비정형가)를 띠고 있다. 과거와 같이 혈연이나 동거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성원 조합을 보이며 정서적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일련의 집단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지원정책도 다양한 가족형태별로 차등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합계출산율 변화추이(1960~2004년)

연도	1960	1974	1984	1990	1995	2000	2002	2004
합계출산율	6.0	3.6	2.1	1.6	1.65	1.47	1.17	1.16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p167.

12)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3) 합계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이다.

## 2) 가족 변화의 원인

한국가족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주요 변화 요인인 출산율의 급감,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결혼율의 하강 및 이혼율의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결혼 및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가족 변화의 원인으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sup>13)</sup>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에는 무려 6.0이던 것이, 가족사업을 힘입어 1984년에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1.47, 2004년에는 1.16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 이에 따른 보육시설의 부족, 자녀 양육비의 교육비 상승,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가족복지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출산력 제고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 시킨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에는 3.3%에 불과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5.1%를 나타내고,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다.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9.1%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4명중의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도 급상승하고 있다 1960년에는 6.1이던 것이 1990년에는 7.4로 상승하였고, 2000년 10.1, 2005년 12.6를 보이고 있다.

2030년의 노년부양비는 37.3으로 성인 10명이 노인 약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부담을 갖게 된다. 더구나 출산률의 저하로 노인을 돌볼 자녀수가 적고, 더욱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족이 노인부양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표 3>에 제시되었듯이 1963년 36.3%에서 2004년에는 49.9%로 지난 41년간 13.6%가 증가하였다. 현재는 여성의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중 기혼여성의 48.7%, 미혼여성의 53.3%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표 2. 노인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단위: %)

연도	0~14세 인구구성비	15~64세 인구구성비(A)	65세 이상 인구구성비(B)	노년부양비 (B/A×100)
1960	42.9	53.8	3.3	6.1
1970	42.5	54.4	3.1	5.7
1980	34.0	62.2	3.8	6.1
1985	30.2	65.6	4.3	6.5
1990	25.6	69.3	5.1	7.4
1995	23.4	70.7	5.9	8.3
2000	21.1	71.7	7.2	10.1
2005	19.1	71.8	9.1	12.6
2010	16.3	72.8	10.9	14.9
2020	12.6	71.7	15.7	21.8
2030	11.2	64.7	24.1	37.3
2040	10.1	57.9	32.0	55.2
2050	9.0	53.7	37.3	69.4

주: 노년부양비 = 노인인구 구성비/15~64세 인구구성비 × 100  
 자료: 1960~1970년 통계: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9.  
 1980년 이후 통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p.158

참여는 가족내 성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성역할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부인과 남편이 역할을 공유하는 성평등적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되자 결혼은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결혼생활에서 불만족했을 때, 이를 참지 않고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표 4>에 제시하였듯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70년에는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율은 2003년에는 3.5건으로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현재 2.6건이다. 이혼율이 감소한 이유는 일부는 이혼 전에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 할 수 있

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었고,<sup>14)</sup> 일부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가족 변화의 원인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되었듯이 결혼의 필요성은 1992년에는 75.8%를 보였는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 67.6%, 1998년 67.5%, 2000년 55.6%, 2003년 54.4%, 2005년 49.3%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수만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였는데, <표 5>에 제시되었듯이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은 1991년에는 8.5%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표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연도	남자	여자		
		전체	기혼	미혼
1963	76.4	36.3	-	-
1970	77.9	39.3	-	-
1980	76.4	42.8	-	-
1990	74.0	47.0	46.8	45.6
2000	74.0	48.3	48.7	47.0
2004	75.0	49.9	48.7	53.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5.

14)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이혼율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향후 이혼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 제도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5) 경제불황과 이혼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기원(2004)은 경제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고 하였다(정기원,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7권, 제 1호, 2004, pp.57~80).

표 4.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건, %)

연도	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
1970	295,137	11,615	9.2	0.4	3.9
1980	403,031	23,662	10.6	0.6	5.8
1990	399,312	45,694	9.3	1.1	10.8
1995	398,484	68,279	8.7	1.5	17.1
2000	334,030	119,982	7.0	2.5	35.9
2001	320,063	135,000	6.7	2.8	42.2
2002	306,573	135,014	6.4	3.0	44.0
2003	304,932	167,096	6.4	3.5	54.8
2004	310,944	139,365	6.4	2.9	44.8
2005	316,375	128,468	6.5	2.6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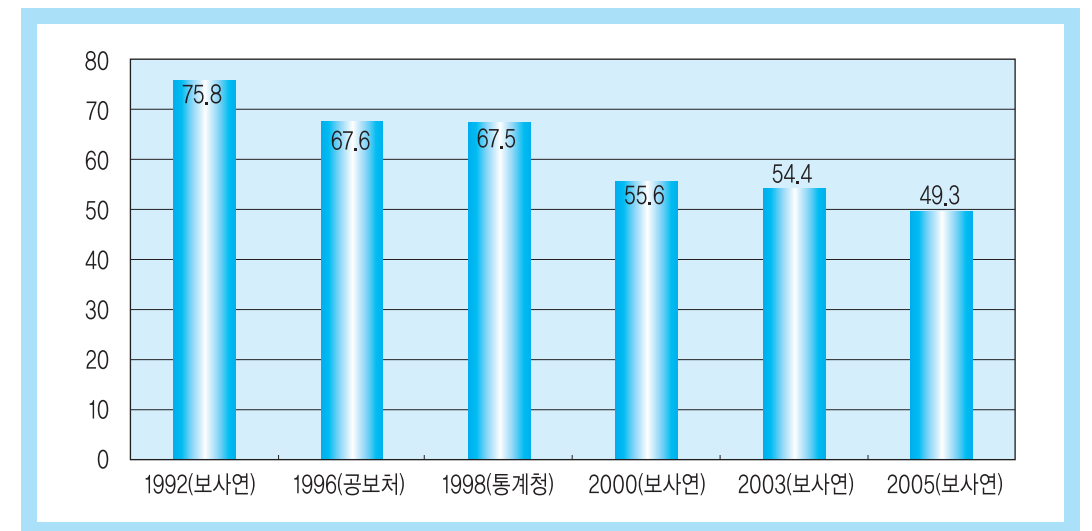
주: 1)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1년간 발생한 총 온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2)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CDR):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3) 결혼에 대한 이혼율 = (이혼건수 ÷ 결혼건수) × 100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그림 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1992년~2005년)



주: 수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년도(기혼여성),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기혼남녀).

표 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7~2005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
1991	90.3		8.5	1.2	100.0(7,448)
1997	73.7	16.6	9.4	0.3	10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0(6,593)
2005	23.4	41.8	34.9	0.0	100.0(3,417)

자료: 1991~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년도, 2005년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

2000년에는 10.0%가 되었고, 2005년에는 무려 34.9%가 지적되어 지난 14년간 26.4%나 증가하였다. 역으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에는 90.3%이었는데 반해, 2005년에는 65.2%로 같은 기간동안 25.1%나 감소하였다.

### 3.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

#### 1) 구조적 변화양상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가족은 항상 변화하여 왔다.<sup>16)</sup>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의 사고와 유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Carter와 McGoldrick(1999)는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체기가 되어서 더욱 문제라고 하였다.<sup>17)</sup> 따라서 가족의 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가와 관련된 질적인 차원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가족의 구조란 세대 가족구성원 수나 가족성원간의 관계, 즉 결합형태(세대별 관계, 유형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sup>18)</sup> 지난 25년간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모습에 대해서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모습은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감소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의 안정적인 지속, 비정형가구의 급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비정형가이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한부모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1인단독가구,

16)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6, 2000, pp.69~99.  
 17)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6, 2000, pp.69~99에서 재인용.  
 18) 김승권,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9) 최희경·이인숙,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5호, 2005, p245~283.

표 6. 한국가족의 구조 변화양상(1975~2000년)

(단위: %)

가족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세대	부부가족	5.0	6.4	7.8	9.3	12.6	14.8
	기타	1.9	2.3	2.5	2.4	1.8	1.9
	소계	6.7	8.6	9.6	10.7	12.6	4.2
2세대	부부+미혼자녀	55.6	56.5	57.8	58.0	58.6	57.8
	한부모+미혼자녀	10.1	10.0	9.7	8.7	8.6	9.4
	부부+양(편)친	0.5	0.6	0.8	0.9	1.1	1.2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1	2.3	2.3	1.7	1.0	0.6
	조부모+손자녀	3.4	3.2	2.3	4.0	0.3	0.3
	기타	-	-	-	-	3.3	2.8
소계	68.9	68.4	67.0	66.2	63.3	60.7	
3세대	부부+자녀+양(편)친	10.9	10.4	9.9	9.3	8.0	6.8
	기타	8.8	6.7	5.3	3.8	3.0	2.6
	소계	19.2	16.5	14.4	12.2	9.8	8.2
4세대 이상	1.0	0.6	0.5	0.3	0.2	0.2	
비혈연가구	-	1.5	1.7	1.5	1.4	1.1	
합계	99.3	100.5	100.6	99.9	99.9	99.5	
1인가구	4.2	4.8	6.9	9.0	12.7	15.5	
비정형가구 <sup>1)</sup>	18.8	18.8	19.7	22.5	21.4	24.7	
평균 가구원수 (명)	5.0	4.5	4.1	3.7	3.3	3.1	
여자가구주 비율	-	-	15.7	15.7	16.6	18.5	

주: 1) 비정형가구 = 한부모가구+조부모 및 손자녀가구+1인가구+비혈연가구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최희경·이인숙,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5호, 2005, p248에서 재구성 및 재인용.

비혈연가구 등이 포함된다.<sup>19)</sup>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이 급증하여 1975년에는 5.0%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4.8%가 되었다. 1인 단독가구도 급증하여 1975년 4.2%에서 2000년 15.5%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부모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가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재혼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가구원수도 대폭 감소하여 1975년 5.0명에서 2000년에는 3.1명

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여성 가구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기능적 변화양상

다음에서는 한국가족의 기능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의 유지 및 존속, 가족구성원의 육

구중족이 달성된다.<sup>20)</sup>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sup>21)</sup> 가족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가족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가족의 기능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표 7>에 제시되었듯이 가족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인 재생산과 가족집단 형성 기능, 경제적 지지기능, 양육, 교육 및 사회화 기능, 노약자 보호기능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국가족은 대부분의 기능을 가족 밖의 제도에 넘겨주었을 수 있다. 가족의 재생산과 가족집단 형성 기능은 동거, 이혼, 혼외출산, 무자녀부부 등의

증가로 약화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상업화의 발달과 단독가구의 증가로 약화되거나 대체되었다. 양육,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은 학교 및 보육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맡게 됨에 따라서 약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약자 보호의 기능도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증가하고,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가족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든 기능 면에서 가족외의 기관이나 제도가 가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었다. 학자들은 현대 가족의 주요 기능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서는 위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보다 10년 먼저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논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보다 거쳐갔던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작업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논쟁의 계기는 미국 가족의 변화지표인 이혼, 혼외출산,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과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고, 초혼의 이혼율은 50%(재혼의 경우 60%)에 달하고 있고, 혼외출산율은 1960년 5%에서 1986년 27%로 증가하였다.<sup>22)</sup> 10대의 출산 1960년 15%에서 1986년 61%로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족 1960년 9%에서 1990년 24%로 늘어났다.<sup>23)</sup>

이러한 가족의 위기적 요소가 팽배하게 되자 학계에서는 미국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인한 가족쇠퇴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가족의 진보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1993년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에 David Popenoe가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을 실게 되면서부터이다. 가족에 대한 양대 입장에 대해서는 <표 8>에

표 7. 가족의 기능과 한국가족의 기능변화 양상

가족의 기능	개인에 기여한 점	사회에 기여한 점	가족에 영향을 준 결과	한국가족 기능변화 양상
재생산과 가족집단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감 제공</li> <li>정체성 제공(개인적, 사회적)</li> <li>삶의 의미와 방향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 통제</li> <li>사회구성원 재생산(종족 보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에의 헌신 및 유지</li> <li>계획된 출산</li> </ul> </li> <li>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 부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화</li> <li>예: 동거, 이혼, 혼외출산, 혼전출산, 무자녀부부</li> </ul>
경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식주 등 기본자원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사회구성원 발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의식주 제공</li> </ul> </li> <li>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유기 및 방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화 및 대체</li> <li>예: 상업화, 단독가구</li> </ul>
양육, 교육 및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 도움</li> <li>사회적 가치와 규범 주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적 사회구성원 역할 교육</li> <li>성인이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li> <li>반사회적 행동 통제 및 위험으로부터 사회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간의 사랑 및 상호 지원</li> <li>부부간의 헌신 및 만족</li> <li>자녀와의 유착</li> </ul> </li> <li>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 자녀학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화 및 대체</li> <li>예: 학교, 보육시설</li> </ul>
노약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약자 보호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보호</li> </ul> </li> <li>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학대</li> <li>장애가족 시설보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화 및 대체</li> <li>예: 노약자 보호시설, 부양의식 약화</li> </ul>

자료: Patterson, Joan M.,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4, 2002, pp.353;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18.(한국가족 기능변화 양상).

20) 김승권,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1) 김승권,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2) Bengtson, Vern 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y & Research*,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5.

23) Bengtson, Vern 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y & Research*,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5.

제시하였다.

두 입장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가족의 변화의 원인, 이혼 증가 이유, 가족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에서 상충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족해체론 혹은 쇠퇴론자들은 개인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 가족진보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가족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족쇠퇴론자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가치

관이 약화된 데 기인하였다고 보고 있는 반면, 가족진보론자들은 가부장제의 모순과 경제구조의 변화(경제의 불안정)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즉 전자는 가족의 변화를 가족 내적인 데 두는 반면, 후자는 가족 외적인 데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의 증가이유에 있어서는 가족쇠퇴론자들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가족보다는 개인의 만족 추구에 있다고 한 반면, 가족진보론

자들은 이혼에 대한 비용의 감소와 낙인의 약화등을 들고 있다. 즉, 가족진보론자들은 결혼 생활이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이혼자에 대한 낙인이 적어진 현대에 와서 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쇠퇴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회조직을 약화시키며, 사회문제를 양상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가족진보론자들은 이혼이 오히려 개인에게 행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동에게도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가정환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양대 입장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데 가족쇠퇴론자들은 가족문제 해결은 가족내적 기능 강화를 통해 하는 신가족주의를 확립하고, 가족친화적 환경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반면,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문제를 가족 외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한 논쟁

한국에서 가족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저출산, 만혼 및 비

혼, 이혼,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한국에서도 가족의 변화를 보는 입장은 상반되는 두 견해로 나뉜다. 한 입장은 한국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입장은 이를 ‘가족의 다양화 혹은 재구조화’로 수용하는 견해이다. 두 입장의 관점에 대해서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가족위기론에서는 가족 변화지표를 이혼율, 저출산율, 높은 재혼율에 두고 있는 반면, 가족재구조화론에서는 권위주의 붕괴, 가족성원의 선택의 폭과 양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성역할 평등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주기의 변화 등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족위기론에서는 전형적인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본 반면, 가족재구조화론에서는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기인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의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혼은 가족해체가 아니라 가구의 분화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24)</sup>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위기론에서는 건강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화된 핵가족으로 보고,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등은 비정형화된 가족으로 분류한

표 8. 미국의 가족 변화에 대한 양대 관점

구분	가족쇠퇴론 (Family Decline Perspective)	가족진보론 (Family Resilience Perspective)
주요 학자	Glenn, Popenoe, Waite & Gallagher, Whitehead, Wilson	Bengtson, Biblarz & Roberts, Coontz, Demo, Skonck, Stacey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점	•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 추구 • 무제한적 개인 이해의 추구는 결혼 및 사회질서를 약화시킴.	• 사회의 안정보다 개인의 자유 추구 • 성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의 약화가 개인의 행복과 발전의 잠재력을 향상시켰음.
가족변화의 원인	• 극단적인 개인주의 • 가족주의 가치관 약화	• 가부장제의 모순 • 경제구조 변화(경제의 불안정)
이혼 증가 이유	•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간은 가족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 • 따라서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배우자는 이를 끝까지 참고 견뎌내기 원하지 않음.	• 결혼은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음. • 과거에는 이혼이 시간과 고비용을 수반했고 개인에게 낙인을 주었기 때문에 기피되었음.
이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에 대한 입장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의 증가는 자녀에게 많은 문제를 초래함(예: 정서적 혼란, 인간관계의 어려움, 비행, 학교중퇴 등) • 한부모의 증가와 재혼가족의 증가는 사회조직을 약화시킴. 아울러 법률비용, 복지비용 등을 상승시킴 • 가족해체로 인해서 빈곤, 비행, 폭력, 중독, 자녀 학업성적 저하, 이웃관계 악화 등이 초래됨	• 이혼은 성인에게 오히려 행복해 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아동에게는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가정환경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해 줌. • 최근의 사회변동은 인간관계를 오히려 강화시켰음.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 신가족주의 확립 (가족문제를 가족 내적 기능강화를 통해 완화) • 친가족적 환경 마련 • 소극적 복지정책	• 경제정책 (가족문제를 가족 외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완화) •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 지원정책 • 적극적 복지정책

24) 이 입장에서는 가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족원이기 때문에 이혼의 결과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구의 분화라고 보고 있다(윤홍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4호, 2004, pp.263~293).

표 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한 양대 관점

구 분	가족위론	가족재구조화/다양화론
학자	정민자, 유영주	김성천·안현미, 윤홍식, 이재경, 송다영, 남윤인순, 김인숙
가족변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율</li> <li>• 저출산율</li> <li>• 재혼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주의 체제 붕괴</li> <li>• 개별가족 및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 폭과 양의 증가</li> <li>•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인한 역할분담 체계의 균열</li> <li>• 이혼율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li> <li>• 출산율 감소로 인한 가족주기상의 획기적 변화</li> </ul>
가족변화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적인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위기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증가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li> <li>-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생산가능 노동력 감소</li> <li>-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통적 노동분업에 대한 재고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요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자연스런 현상임</li> <li>• 최근의 가족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가족형태와 기능의 '다양화'임</li> <li>• 이혼은 가족해체가 아니라 '가구 분화'임(가족의 변동과 가구의 변동은 다름)</li> <li>• 다만 가족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위기적 현상이 나타남</li> </ul>
건강가정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 핵가족, 정형화된 가족(부부+자녀)</li> <li>•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등은 비정형화된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의 개념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가족은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였음.</li> <li>- 가족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음</li> </ul> </li> <li>• 다양한 유형의 가족 수용</li> </ul>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문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강조를 통한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의 회복</li> <li>• 빈곤의 여성화문제: 관련복지정책에 위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문제: 적극적 노동정책</li> <li>• 빈곤의 여성화문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li> </ul>

다. 반면 가족재구조화론에서는 건강가정의 개념을 부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정책에 있어서 가족위론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강조를 통한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의 회복 및 빈곤의 여성화 탈피를 위한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지적한 반면, 가족재구조화론

에서는 적극적 노동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가족외적인 사회정책의 수정확대를 통한 가족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에 대한 논쟁은 미국의 가족논쟁과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유사한 점은 논쟁의 계기, 즉 가족 변화의 지표에 있는데, 양국은 이혼과 이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 및 이혼빈곤 확산으로 논

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반면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는 혼외출산과 10대 임신이 논쟁의 발단이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혼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저출산, 만혼 및 비혼, 그리고 인구고령화 등이 논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한 학자의 연구논문이 논쟁의 발단이 된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부터 시작된 가족위기담론이 학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제시한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가족변화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가족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입장은 가족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입장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아울러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 방향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 5. 결 어

한국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맞물려 구조와 기능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견해는 없다. 그런데 전반적인 학계의 논의와 사회적 담론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우세한데 반해, 국가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가족해체의 관점에서

가족의 변화가 다루어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sup>25)</sup> 최근에는 정책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여러 정부산하 조직이 형성되어, 여기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보던 간에 변화하는 한국가족은 이동빈곤, 가족해체, 저출산, 이혼, 노인부양 부담 등의 과중한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에게 떠맡기는 '선가정-후국가'의 잔여적인 복지체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가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족위론의 입장을 취하되,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재구조화의 입장을 수용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현실적인 타당성 및 정책수립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양대 입장을 절충 통합하여 가족변화에 의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와 가정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가족 외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의 기본 단위가 우리 사회와 개인의 건강성 척도인 '가족'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가족적인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문**

25)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